

2월중 동남권 산업생산 동향

□ 2월중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.0% 증가. 8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생산량은 최고치(2012.3월, 114.1)대비 80% 수준에 그침

※ 동남권 제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(원지수, %)
 △7.9(11월) → △4.5(12월) → △2.8(2016.1월) → 2.0(2016.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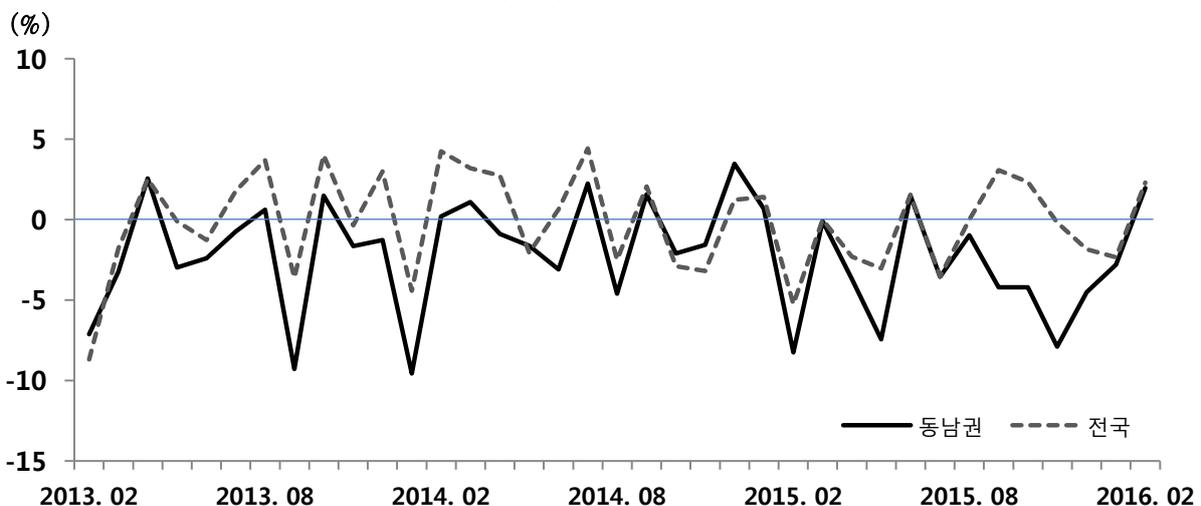
- 업종별로는 조선(-0.4%), 기계(-11.6%)가 감소했으나 자동차(5.3%), 철강(1.4%) 등은 증가

* 조선은 기수주한 해양플랜트물량 건조 및 전년동월 큰 폭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나 생산량은 최고치(2013.1월, 125.7)의 절반(56%)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

*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조치(2016.2.3일 정부는 한시적으로 금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) 및 신차효과(EQ900, 아이오닉) 등으로 증가세 확대

- 지역별로는 울산(2.9%) 및 경남(2.1%)이 증가했지만 부산(-1.6%)은 감소

<동남권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>



주 : 전년동월대비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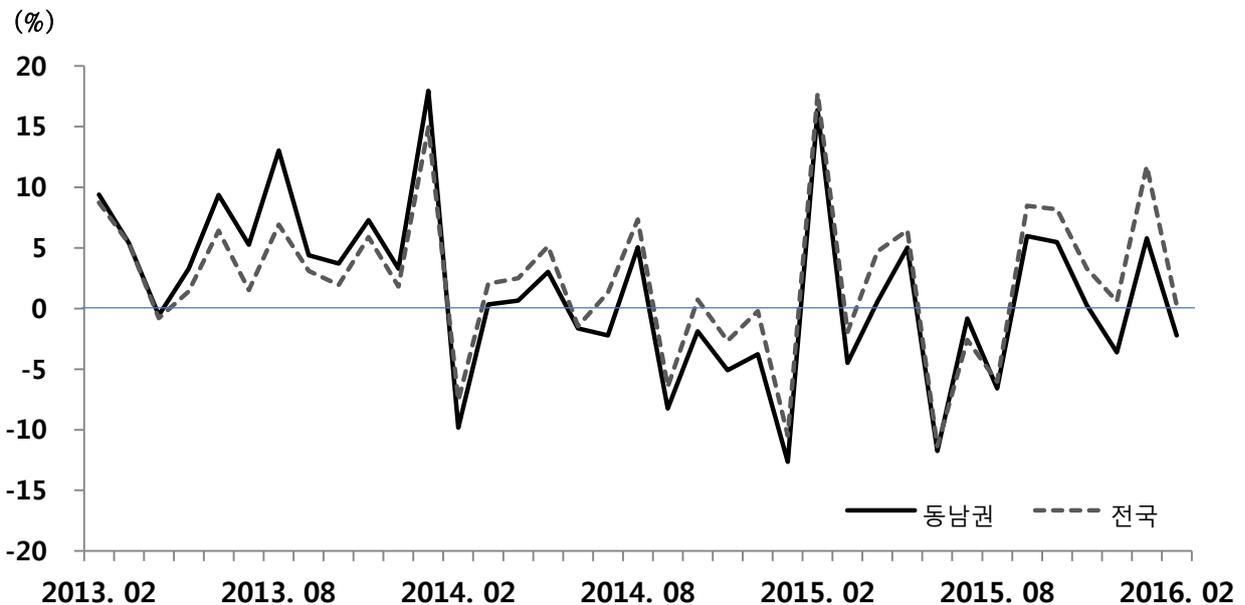
□ 2월중 동남권 대형소매점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.2% 감소

※ 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(원지수, %)

0.2(11월) → △3.6(12월) → 5.8(1월) → △2.2(2월)

- 백화점(△2.4%), 대형마트(△1.9%) 모두 감소
- 상품별로는 가전제품은 증가했으나 음식료품, 신발가방, 오락·취미·경기용품 및 의복이 감소
- 지난해와 달리 월초 설연휴로 인해 소비활동은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감소
- 지역별로는 부산(△2.0%), 울산(△4.2%), 경남(△1.2%) 모두 감소

<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율>



주 : 전년동월대비 증가율

담당: 백충기 수석연구위원
 김민준 책임연구위원
 Tel. 051) 620-3186